

전면전 치달는 ‘저축銀 게이트’

민주 “권력형 비리” 靑 “野의원 로비” 한나라 “前정권서 부실 키웠다” 가세

저축은행 사태를 두고 전날 청와대와 민주당의 대치 양상에서 한나라당까지 가세하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한나라당이 1일 전 정권 책임론을 적극 거론하며 대야(對野)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청와대에서 ‘뒷담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적극 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것”이라며 “특히 지난 정권에서 통했던 로비가 현 정권에서 통하지 않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비리 의혹은 검찰에서 밝혀져 이달 말

부터 진행될 국정조사에서는 저축은행이 그동안 받은 특혜와 부실 경과 등에 초점을 맞추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도 “저축은행 문제는 지난 10년에 걸친 기형적 운영 때문으로, 원인 규명이 우선되어야 하고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비리 관련 부분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배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공방의 중심에 선 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박지원·박선숙 의원의 상임위에서 저축은행은 감사원의 감사대상 아니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는 도둑을 감싸면서 도둑을 잡겠다는 경

찰을 비판한 격”이라며 “지금 와서 ‘감독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권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는 특권과 반칙, 서민 피눈물 흘리게 하는 대표적 권력비리 사태”라며 “이명박 정부가 제때 부실을 정리하지 못하고, 키워서 서민 피해자를 만든 사태로, 그 본질은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전략에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대통령의 정치는 정도를 가야 하며, 야당에 뒤집어씌워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저축은행 진상조사TF박지원 위원장은 “저축은행은 조선총독부 때 무진회사법부터 출발해 지금에 이르렀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한 사람인가”라면서 “전 정권에 (개입한 인사가) 있으면 잡아가라. 왜 4년을 집권하고도 전 정

권에 책임을 떠넘기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이 정권 청와대는 무슨 일만 생기면 야당을 몰고 늘어지는 ‘물타기’ 청와대가 돼 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저축은행 로비 의혹의 초점을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1인에게 집중시켰다.

박지원 위원장은 ‘손석희의 시선집중’ 등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정 수석은 (수백억 원대 불법·부실 대출 혐의로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역삼동에 있는 경복아파트 사이의 고깃집에 가보면 신씨와 얼마나 많이 나 타났는지 알 수 있다”며 “또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서 500억원, 1000억원을 부산저축은행에 증자하도록 했 고 그 대신 박씨 소개로 포함되어 있는 건설회사에 대출해 주는데, 여기에 여권의 유력정치인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동철의원 출판기념회 축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동철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축하하려고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맨 왼쪽이 김동철 의원.

김종창씨 금감원장 취임전 ‘아시아신탁’ 이사였다 (부산저축은행 투자 회사)

작년 90억 투자 절반 회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을 받았다 는 의혹이 제기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한 회사에 관여했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법무법인 고문으로 지내던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부동산 신탁 업체인 아시아신탁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신탁은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약 9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지난해 9월과 12월 26억원과 21억원씩 처분했고, 나머지 투자금 43억원이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돼 회수하지 못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월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 주식 4만주를 모두 매각하는 등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직 금감원장이 몸담았던 회사가 위기설이 나돌던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금융위원회 고위간부 출신인 김광수(54)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로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 1일

원장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관계자에게서 “김광수 원장에게 ‘금융위원회 등에 힘을 써서 은행이 퇴출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는 일부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은 그동안 검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감사역과 전·현직 국장급을 잇따라 체포·구속했으나 금융위 고위간부의 비리가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 김양 부회장(59·구속기소)의 광주일고 후배다.

/*연합뉴스

한나라 의원 16명 ‘저축銀 특검법’ 발의

한나라당 의원 16명은 1일 오후 저축은행 비리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전여욱·진영·권택기·김성동·김성희·김소남·김용태·박준선·배은희·손숙미·원희목·조문환·조진래 의원 등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저축은행의 내부 비리뿐 아니라 영업정지 전후 부당 예금인출 의혹, 감사원·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

정치권과 권력층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을 수사토록 했다. 수사 대상 저축은행으로는 부산저축은행 외에도 부산저축은행·중앙부산저축은행·대전저축은행·전주저축은행·보해저축은행·도민상호저축은행·삼화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8개 저축은행이 모두 포함됐다.

또한, 특검은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1차로 30일, 2차로 15일 이내에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저축銀 비리 대야공세 ‘찰떡공조’ 민주 ‘3朴’ 뚫다

박지원·박영선·박선숙 의원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박영선, 박선숙 의원 등이 찰떡 공조를 통해 대야 공세의 전면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원내사령탑에서 물러났다 당 저축은행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아 전면에 복귀한 박 전 원내대표와 박 의장은 감사원과 검찰 수사, 정무위의 박 부부장은 금융기관 관련 문제점에 집중하는 식으로 역할분담도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주변에선 찰떡 공조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와의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이들에 대해 ‘박씨 패밀리’, ‘박남매’, ‘쓰리 박’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병대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 상임·특위위원장 5명 선출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병대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소속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는 대법관 임명에서 적격으로 판단된다”며 특위가 채택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설명했고, 이어진 무

기명 투표에서 237명의 의원 중 146명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또 한나라당 몫 국회 상임·특별위원장 5명을 새로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에 황우여 원내대표, 행정안전위원장에 이인기 의원, 국토해양위원장에 장광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정갑윤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송강호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당선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향(장성) 동문(광주일고) 같은문중(광산김씨)

김효석 의원-김항식 총리 ‘창과 방패’ 대결 관심

오늘부터 대정부질의

2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여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동향(장성군 황룡면), 동문(광주일고·서울대), 같은 문중(광산 김씨) 출신의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 김항식 국무총리가 ‘창과 방패’로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의를 통

해 이명박 정부의 인사, 국책사업 등에서 호남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고 전남 출신의 김 총리로부터 진솔한 답변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3년 연속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광주 정신’의 부정으로 규정하는 한편 총리가 대독한 대통령 기념사의 문제점에 따진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또한, 김 의원은 반값 등록금 등 최근 여권이 내세우고 있는 친서민정책들이 전형적인 ‘표(票)플리핑’이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가장무도화’라고 지적하고 재정적 측면에서 허구성을 밝혀 내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특정 지역 등을 거론하는 청와대의 대응 태도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비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역민은 김 총리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있는 태도를 견지, 역사에 남기를 바라고 있다”며 “김 총리가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함평다이내스티 CC 사/원/모/집

세계적 푸르른 양산디 친환경 나비고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에서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코스관리팀	남/여	코스, 조경관리	경력/신입
시설관리팀	남	설비, 보일러, 전기	방화, 위험물관리 자격소지자
식음료팀	남/녀	조리사 웨이터/웨이츨레스 주부사원	경력/신입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복직제도】
교육사 제공, 1일3식, 4대보험, 년차차가, 주1회 휴무 하계 및 동계휴가 교통비 지원, 기업상해보험가입 등

【접수방법】
○ 우 편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국창리 산1-6번지 경영지원팀
○ 팩 스 : 061)320-7710
○ E-mail : seungtae01@naver.com
○ 전 화 : 061)320-7717(오승태)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사 원 모 집

현대상호중공업(주)의 협력업체입니다.
「작지만 강한회사」가 되고자 신규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인원	자격요건	비고
디자이너	0명	그래픽기능사 2급 이상	광주시 광산구 지역 및 목포시 하당인근 또는 무안군 거주자
자재관리	0명	운전면허 1종 엑셀기초	상동

◎ 근무방식
1. 오전 08:00 ~ 오후 05:30
2. 토요일 겨주휴무 (오전근무)

◎ 복리후생
1. 출퇴근 차량제공 (무안 ↔ 광주)
2. 4대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3. 중식제공

◎ 제출서류 및 채용기간
1.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통
2. 2011년 6월 20일 마감

◎ 보내실 곳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58-1 (주)창초산업
대표전화 : ☎(061)453-5153 FAX : (061)453-7159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매매가는 상담 후 결정가능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점, 방화지구

※ 10층 신축건물옆 코너

H.P.011-601-5354 (서평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헨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서구 매월동 준공업지역매매

- ▶ 대 지 : 263평, 신축창고53평, 사무실 26평
- ▶ 건물용 60% 유통단지
- ▶ 매매가격 : 6억2천만원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 ▶ 계획관리지역 :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 ▶ 자연녹지 : 700평 ▶ 일반공업지역 : 800평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 ▶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 ▶ 높 이 : 8.9, 10.9m
- ▶ 호이스트 : 유, 유, 유
- ▶ 매매가격 : 협의후결정

문의 : ☎ 016-644-4265, FAX.523-8558